

# 국민 10명 중 1명 연 4회 주기적 헌혈

### 보건복지부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결과 하지 않는 이유 “문진 탈락” “시간 없어” 헌혈 참여 동기 “의미 있는 행동” 70.2%

우리 국민 절반은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10명 중 1명꼴로 1년에 4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혈액보유량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소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경험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의향이 크고, 혈액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우선 헌혈 경험자의 절반 이상(57.0%)은 간헐적 헌혈을 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주기적 헌혈은 11.2%, 총 1회만 경험한 경우는

31.8%였다.

헌혈 1회 경험자가 헌혈하지 않는 이유로 헌혈 문진에서 탈락해서(37.1%), 헌혈을 할 시간이 없어서(34.6%), 채혈과정 후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우려해서(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헌혈 종류로 일반헌혈(88.6%)이 가장 높으며, 지정헌혈(11.4%)을 한 경우, 그 이유로 지인 등의 요청(43.9%), 희귀혈액형이 부족(22.8%), 지정헌혈 요청 글(19.3%) 순이다.

헌혈에 참여한 동기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서(70.2%)가 가장 높으며, 간단한 건강진단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25.2%)이 그 뒤를 이었다.

헌혈경험자의 향후 헌혈 의향은

71.8%로 조사됐다.

헌혈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헌혈 문진에 탈락해서(54.0%), 건강 등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8.8%), 채혈 과정 후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우려해서(25.2%) 순으로 파악됐다.

(1, 2순위까지 합산) 전체 설문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57.2%)이 평소 헌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혈액 안전성에 대해서는 68.2%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헌혈관심 ‘보통’ 33.5%, 혈액안전성인식 ‘보통’ 28.0% 응답 제외) 특히 헌혈 경험자의 헌혈에 대한 관심(71.2%)과 안전성 인식도(74.0%)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76.0%), 헌혈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한다(71.3%),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70.6%) 인식이 높았다.

헌혈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 헌혈 증진사업 인지도는 헌혈 홍보캠페인(63.0%), 다회 헌혈자 문화행사 및 감사선물(38.4%), 생애 첫 헌

혈 증진사업(25.9%)이며, 각 사업의 필요도 및 헌혈 참여 영향도 또한 높았다. (중복 응답)

헌혈자 예우 증진사업으로 공공시설·지자체·민간시설 이용료 감면(82.7%) 및 지역상품권 증정(82.0%), 다회 헌혈자 포상 필요성(71.6%) 등을 응답했다.

헌혈 기납품 제공 필요도는 79.7%이며, 헌혈자는 최근 헌혈 후 ‘문화’ 관련 기납품(52.0%)를 받았으며, 만족도는 66.5%이나 기납품 종류 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34.3%)는 낮은 편이었다.

헌혈 기납품 개선 시 헌혈 동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78.8%로 나타났다.

헌혈 참여 홍보 방안에 있어서 전체 설문응답자의 40.1%는 최근 2년 내 헌혈 홍보활동을 접해본 바 있으며, 접촉 경로는 헌혈의집·헌혈카페·헌혈버스(60.3%), TV(37.7%), 버스·지하철·전광판 등 옥외광고(27.9%), SNS(24.7%) 순으로 조사됐다.

##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뽕뽕!** <204>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출발>에서부터 계산식의 답이 '5'가 되는 식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b>&lt;출발&gt;</b>				
10÷2	4×2	30-20	1+5	5+5
9-4	2+3	25÷5	20÷5	9-5
2×3	7-3	10-5	8-4	10÷5
4×5	10×5	45÷9	6-1	5×5
10÷5	20÷5	3+5	20-15	4+1
3×4	8+3	1×4	6+1	8-3
<b>&lt;도착&gt;</b>				

문제 2. 아래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요금안내>**

- 51,000원 (주황색)
- 45,000원 (초록색)
- 30,000원 (파란색)
- 예약불가 좌석 (회색)

- 1) 김광역씨는 5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A열 혹은 F열 창가라인 중에서 최대한 앞쪽 좌석으로 예약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역씨가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은 어디일까요? >
- 2) 정오름씨 일행은 3C, 10D 좌석을 예약하고자 합니다. 정오름씨 일행이 지불해야 하는 총 요금은 얼마인가요? >
- 3) 정아라씨는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한 앞쪽 좌석으로 붙어있는 3자리 예매 하고자 합니다. 정아라씨가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번호는 무엇이며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

문제 3. <보기>를 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보기>**

**서울**  
9월 10일 오전 09:30

**오슬로**  
9월 10일 오전 02:30

- 1) 서울과 오슬로의 시차는 몇 시간인가요? >
- 2) 서울이 오후 5시일 때 오슬로는 몇 시가 될지 시계에 그려보세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뇌뽕뽕 문제풀이 영상이 YouTube에 업로드 됩니다.

YouTube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를 검색하세요.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교육 무료로 신청하세요”

###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배움터 33개소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폰 활용 등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디지털배움터 33개소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받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기기 발달 및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확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PC·인터넷 위주의 기존 정보화교육 달리 디지털 이용환경 변

화를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 정보화교육장, 읍면의 정보화마을, 도서관 등 33개소에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교육생을 상시로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계층·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특별과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세부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활용 ▷화상회의 솔루션 ▷SNS 등 기본 활용법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키오스크 활용법 등이다.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대표 콜센터(1800-0096(공공교육),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 도, 연말까지 중점 발굴 기간 사회참여·일상생활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까지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중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다.

도는 올해 8619명을 목표로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7699명 대비 920명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 간 홀로 사는 어르신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돌봄 수행기관(10개소) 전문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돌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 지원(안부 확인, 말벗 등) ▷사회 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등)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르신 건강증진·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특화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 가정에는 ICT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 응급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제주의 안녕과 코로나-19 극복 기원

# 제22회 한라산 영산대제

만등(萬燈) 밝혀 올리옵고 만화(萬花) 피워 올리오니  
공덕으로 밝고 원만하고 행복한 나날 되어지이다

원로의원 삼이 우경 합장  
주지 무소 허운

불기2565(2021)년 10월 30일(토) 오후 1시 30분 관음사 삼성각 앞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제주시 산록북로 660 T.064)724-6830